

義士의 죽음, 烈女의 탄생

- 『史記』 「刺客·聶政」 깊이 읽기

김광일*

— 목 차 —

1. 서론: 司馬遷이 다시 구성한 聶政 이야기
2. 미궁에 빠진 피살사건의 진상
 - 1) 기원전 400년 전후의 국제정치 상황
 - 2) 聶政 사건의 미궁
3. 『史記』 「聶政傳」의 갈등 구조
 - 1) 俠累와 嚴仲子: 血族과 寵臣의 대립
 - 2) 嚴仲子와 聶政: 義와 知를 둘러싼 암묵적 계약
 - 3) 聶政과 聶榮: 중국 최초 烈女의 탄생
4. 결론

국문초록

聶政은 『史記』 「刺客傳」에서 네 번째로 立傳한 인물로서, 嚴仲子의 사주를 받아 韓의 재상 俠累를 암살한 刺客이다. 당시는 韓이 공격적으로 국세를 확장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한 신흥 강국의 재상이 대낮에 조정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킨 중대한 정치적 사태였다.

俠累 피살사건에 대한 가장 완전한 전국시기 문헌의 기록은 『戰國策』의 「韓傀相韓」이며, 司馬遷 역시 이 기록을 근간으로 『史記』 「聶政傳」을 기술한다. 그런데 원사료인 「韓傀相韓」과 司馬遷이 다시 구성한 「聶政傳」은 그 서사

*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부교수

의 초점이 미묘하게 다르다. 『戰國策』 「韓傀相韓」이 이 사태의 경과와 정치적 과장을 서술하는 데에 집중한다면, 『史記』 「聶政傳」에서는 윤리와 가치의 충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범인 聶政의 누이이자 중국 최초의 烈女인 聶榮의 이야기를 확장함으로써 전국시기 초기 시대적 윤리의식의 변화와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포착하는 데에 집중한다.

이 연구에서는 『戰國策』 「韓傀相韓」과 같은 전국시기 문헌과 『史記』 「聶政傳」의 서사 내용과 구조를 자세히 비교·분석하여, 司馬遷이 「聶政傳」을 통하여 그려 보이고자 하였던 전국시기의 시대상을 재구성한다. 그 과정에서 의로움[義]과 명예[名]가 어떻게 당시의 시대정신이 되었는지 추적하고, 나아가 烈女의 의미를 새롭게 규명한다.

키워드: 聶政, 聶榮, 俠累, 嚴仲子, 義士, 烈女, 의로움[義], 명예[名]

1. 서론 : 司馬遷이 다시 구성한 聶政 이야기

聶政은 『史記』 「刺客傳」에서 네 번째로 立傳한 인물로서, 嚴仲子の 사주를 받아 韓 재상 俠累를 암살한 刺客이다. 재상이 대낮에 조정에서 살해당한 이 사건은 단지 한 국가의 내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는 韓이 諸侯로 정식 인정을 받고(기원전 403년) 鄭을 완전히 병합하는(기원전 375년) 등 국세를 확장하여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대한 정치적 사태이기도 했다.

俠累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풍부하고 완전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전국시기 문헌은 『戰國策』이다.¹⁾ 특히 권27 「韓二·韓傀相韓」에서는 이 사건의

1) 『戰國策』의 현행본은 西漢 말기 劉向이 최종적으로 편집하였기 때문에 戰國時期 사료의 원래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聶政과 관련한 『戰國策』의 기록은 기본적으로 전국시기 문헌으로 상정한다. 『戰國策』

배경·원인·경과·주요인물 등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어, 『史記』 「聶政傳」과 같은 후대 문헌에서는 주로 이 기록을 바탕으로 聶政의 이야기를 이해한다. 또한, 권1 「東周·嚴氏爲賊」은 聶政의 행로와 관련한 국제적 책임 소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권25 「魏四·秦王使人謂安陵君曰」과 권28 「韓三·謂鄭王曰昭釐侯」에서는 聶政이나 東孟之會처럼 이 사건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한다.

『戰國策』 이외에도 『竹書紀年』에서는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韓 哀侯 피살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²⁾ 또한, 『韓非子』는 권7 「說林上」에서 韓傀(俠累) 암살과 관련한 뜻밖의 음모를 거론하고 있으며, 권10 「內儲說下」에서 군주 권력의 약화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한다.

이렇듯 俠累의 피살에 대해 여러 전국시기 문헌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이 당시 국제적으로 상당히 이목을 끌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관련 정보가 모두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사건 발생의 시기, 주모자와 피살 대상과 같은 주요인물, 이 사건이 미친 파장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확하며 심지어 상호 모순을 나타내기도 한다.

전국시기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술한 『史記』에서는 주로 권86 「刺客·聶政傳」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권15 「六國年表」와 권45 「韓世家」에서도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聶政傳」과 「六國年表」·「韓世家」의 기록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각 편에서 司馬遷이 근거한 사료가 서로 달랐던 듯하다. 이로 인해 기원전 4세기 초 한나라 재상이 살해당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로서 거의 불가능하다.

』의 자료와 成書의 문제에 대해서는 劉向, 『戰國策』三十三篇(姚振宗 輯錄, 『七略別錄佚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范祥雍, 『戰國策傳本源流考』, 『戰國策箋證』(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3~6쪽 참조.

2) 司馬貞의 『史記索隱』 「韓世家」에서 인용한 『紀年』; 方詩銘·王修齡 校注, 『古本竹書紀年輯證』(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魏紀·十六」: “『紀年』魏武侯二十一年, 韓滅鄭, 哀侯入于鄭. 二十二年, 晉桓公邑哀侯于鄭. 韓山堅賊其君哀侯而立韓若山.”

하지만 여러 문헌 기록 사이의 간극과 모순을 자세히 고찰하면, 司馬遷이 그려내고자 하였던 전국시기의 시대상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戰國策』 「韓傀相韓」과 같은 전국시기의 문헌이 이 사태의 경과와 정치적 과장을 서술하는 데에 치중한다면, 『史記』 「聶政傳」에서는 윤리와 가치의 충돌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이 사건의 범인 聶政의 누나이자 중국 최초의 烈女인 聶榮의 이야기를 확장함으로써 전국시대 초기 시대적 윤리의식의 변화와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포착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시대 문헌과 『史記』 「聶政傳」의 서사 내용과 구조를 자세히 비교·분석하여, 司馬遷이 「聶政傳」에서 그려 보이려고 하였던 전국시기의 시대상을 재구성한다. 그 과정에서 의로움[義]과 명예[名]가 어떻게 당시의 시대정신이 되었는지 추적하고, 나아가 烈女의 의미를 새롭게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2. 미궁에 빠진 피살사건의 진상

전국시대 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시기를 기술하는 데에 이용할 편년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춘추시기에 대해서는 『春秋』와 『左傳』·『公羊傳』·『穀梁傳』이라는 편년사가 존재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어떤 사건의 발생 연대를 추정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하지만 그보다 후대인 전국시기는 여러 제자서와 『戰國策』 등에 관련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대하였지만, 연대 확정 기준으로 삼을 만한 통일된 자료가 거의 없다. 『史記』 「六國年表」는 秦의 연대기를 중심으로 편찬하였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오류가 많으며,³⁾ 특히 기원전 5세기 중반부터 4세기 말까지 발생한 사건의 紀年은 매우 까다롭다.⁴⁾

3) 가이즈카 시게키·이토 미치하루 지음, 배진영·임대희 옮김, 『중국의 역사: 선진시대』 (서울: 도서출판 혜안), 제11장 「전국시대의 의의」, 313~317쪽 참조.

4) 顧炎武, 黃汝成 集釋, 『日知錄集釋』(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권13 「周末風俗」: “自『左

韓相 俠累의 피살사건의 경우, 『戰國策』 「韓傀相韓」과 『史記』 「聶政傳」에서는 韓 哀侯 때의 일로 서술하였지만 「六國年表」와 「韓世家」에는 烈侯⁵⁾ 3년 때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 일단 사건 발생의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韓 烈侯와 哀侯는 그 재위 기간과 즉위년의 西曆 比定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史記』에서 말한 烈侯 3년과 哀侯 6년이 西曆으로 환산하면 언제인지 현대의 연구자들조차 통일된 의견이 없다.⁶⁾

이 때문에 재상 피살의 진상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 발생 시기를 미리 확정하기보다는 우선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포착하는 방법이 유용할 듯하다. 아래에서는 당시 국제적 정세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聶政 관련 문헌을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이 사건의 역사적 진상과 의미를 추적한다.

1) 기원전 400년 전후의 국제정치 상황

춘추시기 패권국이었던 쑤에서는 기원전 5세기 중반 중대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난다. 한때 쑤나라의 정권을 장악하였던 智氏가 기원전 453년 몰락하고, 趙氏·魏氏·韓氏의 세 宗族이 쑤를 분할하였다.⁷⁾ 이후 魏에서 文侯가 즉위

傳」之終，至周顯王三十五年，前後一百三十三年之間，史文闕軼，考古者爲之茫昧也。”

5) 『史記』 「六國年表」에서는 ‘烈侯’로 표기하였지만 「韓世家」에서는 ‘列侯’로 쓰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원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烈侯’로 표기한다.
6) 陳夢家, 『六國紀年』(北京: 中華書局, 2005), 「六國紀年表考證·韓世系」; 方詩銘, 『中國歷史紀年表(修訂本)』(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7), 「戰國紀年表」; 方詩銘·王修齡 校注, 『古本竹書紀年輯證』(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魏紀·十六」; 范祥雍, 『古本竹書紀年輯校訂補』(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附錄 「戰國年表」; 楊寬, 『戰國史料編年輯證』(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5), 卷4 「周威烈王二十四年(公元前四〇二年)至周安王二十一年(公元前三八一年)」; 卷5 「周安王二十二年(公元前三八〇年)至周顯王七年(公元前三六二年)」; 附錄 「列國紀年訂正表」; 平勢隆郎, 『新編 史記東周年表: 中國古代紀年の研究序章』(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5), 表II 「新六國年表」 참조.
7) 楊寬, 『戰國史料編年輯證』(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5), 卷1 「周貞定王十六年」 참조. 이 절에서 표기하는 전국시기의 紀年은 주로 이 책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하여(기원전 446) 기원전 5세기 말 국제정치를 주도한다.

魏 文侯는 李悝와 吳起 등을 기용하여 성문법을 편찬하고 농지를 개척하였으며 물가 조정 등 새로운 재정정책을 시행하였다.⁸⁾ 또한, 전쟁을 통해 주변의 작은 나라를 합병하였으며, 서쪽으로는 秦나라를 공격하여 黃河以西 지역을 확보하고 동쪽으로는 齊의 장성을 공격하여 제나라 군주의 항복을 받아낸다.⁹⁾ 결국 기원전 5세기 말에 魏는 趙·韓과 함께 周 왕실에게 정식으로 제후로 인정받기에 이른다(기원전 403).¹⁰⁾

이렇게 文侯가 추진한 새로운 정책과 군사적 팽창은 단지 魏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는 역사서에서 흔히 “전국시대 변법”이라 부르는 역사적 흐름으로서, 도시국가의 몰락과 중앙집권적 영토국가의 확장, 씨족공동체의 붕괴와 士 계급의 부상, 관료국가의 성립, 농업생산의 비약과 小農의 확산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魏와 더불어 쥘을 분할한 韓 역시 이와 같은 흐름에 동참하여 부국강병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갔다. 韓은 원래 현재의 山西省 臨汾市 부근 平陽을 근거지로 삼았는데, 기원전 5세기 말 武子 시기에 黃河의 남쪽으로 천도한 듯하다. 『史記』 「韓世家」에는 貞子 이후 천도의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呂氏春秋』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다. 『呂氏春秋』 「任數」에 등장하는 韓 昭釐侯에 대해 東漢 高誘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

昭釐는 諡號로서, 晉[韓] 宣子 起의 후예이다. 起는 貞子를 낳았고 平陽에 자리 잡았다. (그 후손으로) 康子를 낳았는데, 康子는 趙 襄子和 함께 智伯을 멸하고 그 땅을 나눠 가졌다. 康子는 武子를 낳았는데, 武子는 宜陽으로 천도하였다. 武子는 景子 處를 낳았는데, 景子는 陽翟으로 천도하였다. 釐侯는 景侯의 아들이다.¹¹⁾

8) 가이즈카 시게키·이토 미치하루 지음, 배진영·임대희 옮김, 『중국의 역사: 선진시대』 (서울: 도서출판 혜안), 제12장 「전국시대의 정치적 추이」, 332~335쪽 참조.

9) 리평 지음, 이청규 옮김, 『중국고대사』(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제9장 「영토 국가들의 시대: 전국시대 국가의 정치와 제도(480-221 BC)」, 216~217쪽 참조.

10) 楊寬, 『戰國史料編年輯證』(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5), 卷3 「周威烈王二十三年」 참조.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 康子 시기 智伯을 멸한 후 韓나라가 平陽 → 宜陽 → 陽翟으로 도읍을 옮긴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楊寬의 紀年에 따르면 武子 는 기원전 424년부터 즉위하였는데,¹²⁾ 이후 韓이 山西省 골짜기에서 내려와 황하 이남 중원 지역으로 천천히 진출하였다. 清代 朱右曾은 “韓나라가 平陽을 떠나 陽翟으로 옮겼다가 다시 新鄭으로 천도한 이유는 汝水와 潁水를 장악하여 楚나라와 魏나라를 견제하는 뜻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¹³⁾ 韓의 천도가 국가 성장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원 진출을 통해 韓이 직접적으로 세력을 확장했던 지역은 鄭이었다.¹⁴⁾

『史記』 「世家」에 따르면, 韓 武子 2년(기원전 423) 鄭을 공격하여 幽公을 살해하였고, 景侯 원년(기원전 408)에는 雍丘를 탈취하였다. 이러한 韓의 침탈에 대해 鄭은 京邑에 성을 쌓은 후, 이듬해에는 반격을 가하여 負黍에서 韓에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기원전 407), 몇 년 후에는 韓의 도읍인 陽翟을 포위하기도 한다(기원전 400).¹⁵⁾ 이때까지는 河南으로 진출한 韓이 鄭과 일진 일퇴를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文侯 2년 다시 韓이 鄭을 공격하여 陽城을 취하고 宋의 彭城까지 진출하여 그 군주를 사로잡았다(기원전 385). 文侯 7년에는 齊를 공격하여 桑丘까지 이르렀는데, 이때 鄭은 韓에 반기를 들어 정벌에 참여하지 않았다(기원전 380). 결국 哀侯 2년 韓은 鄭나라를 멸하고 도읍을 아예 鄭(新鄭)으로 옮긴다(기원전 375).¹⁶⁾

11) 陳奇猷 校釋, 『呂氏春秋新校釋』(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권17 「審分覽·任數」 高誘의 注: “昭釐, 諡也. 晉宣子起之後也. 起生貞子, 居平陽. 生康子, 與趙襄子共滅智伯, 而分其地. 生武子, 都宜陽. 生景侯處, 徙陽翟. 釐侯, 景侯子也.”

12) 楊寬, 『戰國史料編年輯證』(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5), 卷2 「周威烈二年」 참조.

13) 朱右曾, 『汲冢紀年存真』(清歸硯齋刻本), 中國基本古籍庫 참조.

14) 『史記』 「韓世家」에 기원전 453년부터 375년까지 약 78년 동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는 鄭이다(총 7차례). 藤田勝久, 曹峰·廣瀨薰雄 譯, 『『史記』戰國史料研究』(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對『史記·韓世家』的史料考察」, 317~318쪽 참조.

15) 『史記』 「韓世家」: “武子二年, 伐鄭, 殺其君幽公. …… 景侯處元年, 伐鄭, 取雍丘. 二年, 鄭敗我負黍. 九年, 鄭圍我陽翟.”

16) 『史記』 「韓世家」: “文侯二年, 伐鄭, 取陽城. 伐宋, 到彭城, 執宋君. 七年, 伐齊, 至桑丘. 鄭反

기원전 4세기 초 韓은 비록 서쪽의 秦에게 宜陽을 공격당하고 여섯 마을을 빼앗기기는 했지만(기원전 391),¹⁷⁾ 동쪽으로는 꾸준히 확장을 도모하였고 마침내 鄭을 합병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이때 魏 武侯는 周王과 晉侯를 받들어 晉의 霸業을 재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衛를 정복하려는 趙와 鄭을 겸병하려는 韓의 시도를 수용할 수 없었다. 기원전 386년 魏나라와 趙나라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趙·魏·韓 세 나라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었다.¹⁸⁾ 韓의 군주와 재상 피살사건은 바로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발생했다.

2) 聶政 사건의 미궁

『戰國策』 「韓傀相韓」에서는 재상 韓傀와 寵臣 嚴遂 사이의 갈등을 피살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설명한다. 韓傀는 문헌에 따라 韓廙나 韓僕 등으로 표기하는데,¹⁹⁾ 이 사람이 『史記』 「聶政傳」의 俠累이다. 傀·廙·僕·累의 관계는 同字, 一聲之轉, 혹은 復聲母之轉 등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²⁰⁾ 모두 俠累의 名으로 파악할 수 있다.²¹⁾ 또한, “韓傀는 俠侯 累이다”라는 東漢 高誘의 주석이 佚文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²²⁾ 俠은 俠累의 爵號인 듯하다.²³⁾ 嚴遂는 聶政에게 韓傀가 韓나라 군주의 작은 아버지라고 설명한다.²⁴⁾

晉. 哀侯元年, 與趙、魏分晉國. 二年, 滅鄭, 因徙都鄭.” 기원전 4세기 초 鄭의 내부 정변과 멸망에 관해서는 吉本道雅, 『『左傳』と鄭』, 日本中國史學會, 『中國史學』(京都: 朋友書店, 2018) 제28집, 77~79쪽 참조.

17) 『史記』 「韓世家」: “(列侯)九年, 秦伐我宜陽, 取六邑.”

18) 吉本道雅, 『中國先秦史の研究』(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5), 「戰國期前半の中原: 覇者體制の再建」, 462~463쪽; 471~472쪽 참조.

19) 『韓非子』 권10 「內儲說下·六微」: “韓廙相韓哀侯”; 張守節의 『史記正義』 「刺客」에서 인용한 『戰國策』: “僕走而抱哀侯”; 『藝文類聚』 권33 「人部·遊俠」: “韓僕嚴遂事於君”.

20) 范祥雍, 『戰國策箋證』(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1577쪽 箋證 참조.

21) 『史記』 「聶政傳」 裴駟의 集解: “徐廣曰: ‘俠累名傀.’”

22) 司馬貞 『史記索隱』 「韓世家」에서 인용한 『戰國策』 高誘의 注: “韓傀, 俠侯累也.”

23) 黃丕烈, 『戰國策札記』(重刻刻川姚氏本), 卷下 「韓二」 참조.

24) 『戰國策』 「韓二·韓傀相韓」: “傀又韓君之季父也.”

韓傀와 대립하는 嚴遂의 경우, 『戰國策』 「韓傀相韓」에서는 ‘嚴仲子’ 혹은 ‘仲子’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史記』 「聶政傳」에서는 오로지 ‘嚴仲子’라고 부른다. 「韓傀相韓」에서는 嚴遂의 출신을 직접 밝히지 않지만, 聶政이 찾아가는 곳을 통해 嚴遂의 근거지가 濮陽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韓非子』 「說林上」에서는 嚴遂가 재상이고 韓傀가 총신인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²⁵⁾

「韓傀相韓」에서는 韓傀가 살해당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聶政이 칼 한 자루만 지팡이 삼아 걸어서 韓에 이르니, 때마침 東孟之會를 거행하고 있었다. 韓의 왕과 재상이 모두 그 자리에 참석하여 칼과 창으로 무장한 호위병들이 매우 많았다. 聶政은 곧바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 韓傀를 찔렀다. 韓傀는 도망치면서 哀侯를 꺾어안았는데, 聶政이 쫓아가서 칼로 찌르니 결국 哀侯까지 칼을 맞았다.²⁶⁾

이 장면은 「韓傀相韓」에서 ‘哀侯’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으로서, 이를 통해 韓傀의 피살이 哀侯 시기의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哀侯의 즉위년과 재위기간이 기록마다 조금씩 달라 그 정확한 연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史記』 「韓世家」에는 哀侯 원년에 趙·魏와 더불어 힘을 분할하고 2년에는 鄭을 멸하고 내쳐 鄭으로 천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니,²⁷⁾ 「六國年表」의 紀年에 따르면 韓 哀侯 원년은 기원전 376년이다. 또한, 哀侯 6년 시해를 당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때는 기원전 371년이다. 그런데 司馬貞은 이에 대해 『史記索隱』에서 『竹書紀年』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고 있다.

【「韓世家」 哀侯 元年·2년 條】 『竹書紀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魏 武侯 21년, 韓이 鄭을 멸하였고, (韓) 哀侯는 鄭에 입성하였다.”

25) 『韓非子』 권7 「說林上」: “嚴遂相, 而韓傀貴於君.”

26) 『戰國策』 「韓二·韓傀相韓」: “仗劍至韓, 韓適有東孟之會, 韓王及相皆在焉, 持兵戟而衛者甚衆. 聶政直入上階, 刺韓傀, 韓傀走而抱哀侯. 聶政刺之, 兼中哀侯.”

27) 『史記』 「韓世家」: “哀侯元年, 與趙、魏分晉國. 二年, 滅鄭, 因徙都鄭.”

魏武侯 22년, 晉桓公은 哀侯에게 鄭을 도움으로 삼게 하였다.” 이때는 韓이 이미 천도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따라 (韓을) 鄭으로 고쳐 부른다. 그리하여 『戰國策』에서는 韓 惠王을 鄭 惠王으로 부르는데, 마치 魏가 大梁으로 천도한 후 梁王으로 칭하는 것과 같다.²⁸⁾

【『晉世家』靜公2년 條】『竹書紀年』에는 魏武侯는 (晉)桓公 19년에 죽었고, 韓 哀侯와 趙 敬侯는 桓公 15년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⁹⁾

『史記』의 각국 「世家」와 司馬貞이 근거한 『竹書紀年』에는 晉桓公, 晉靜公, 魏武侯, 韓哀侯, 趙敬侯 등의 元年과 卒年이 서로 얽혀 있는데, 이렇게 각국 군주의 원년과 졸년을 상호 대조하여 연대를 비정하는 작업은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복잡하다. 많은 학자들은 문헌 기록의 정확성과 전승 과정에서 訛誤 등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전국시대의 紀年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韓哀侯의 원년과 졸년에 대해서도 「六國年表」의 기원전 376/371과 달리, 379/374(平勢隆郎), 376/374(陳夢家·楊寬·方詩銘), 377/375(范祥雍)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³⁰⁾ 특히, 대부분의 학자들이 한 哀侯의 재위기간을 3년으로 파악하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르면 韓哀侯는 鄭을 합병한 이듬해 시해를 당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해, 「韓傀相韓」에서 기술한 韓傀·哀侯의 피살사건은 기원전 375년 혹은 374년에 발생한 일이다.

그런데 依累 피살과 관련된 『史記』의 「聶政傳」·「韓世家」·「六國年表」의 기록이 이 사건의 발생 시기와 주요인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한다.

28) 『史記』「韓世家」司馬貞의 索隱: “『紀年』: ‘魏武侯二十一年, 韓滅鄭, 哀侯入于鄭. 二十二年, 晉桓公邑哀侯于鄭.’ 是韓旣徙都, 因改號曰鄭, 故『戰國策』謂韓惠王曰鄭惠王, 猶魏徙大梁稱梁王然也.”

29) 『史記』「晉世家」司馬貞의 索隱: “『紀年』魏武侯以桓公十九年卒, 韓哀侯、趙敬侯並以桓公十五年卒.”

30) 陳夢家, 『六國紀年』; 方詩銘, 『中國歷史紀年表(修訂本)』; 范祥雍, 『古本竹書紀年輯校訂補』; 楊寬, 『戰國史料編年輯證』; 平勢隆郎, 『新編 史記東周年表: 中國古代紀年の研究序章』 참조.

【「六國年表」韓烈侯 3년(기원전 397)】3월, 도적이 韓의 재상 俠累를 살해하였다.

【「韓世家」列侯 6년】聶政이 韓의 재상 俠累를 살해하였다.

【「六國年表」韓哀侯 6년(기원전 371)】韓嚴이 그 군주를 시해하였다.

【「韓世家」韓哀侯 6년】韓嚴이 그 군주 哀侯를 시해하여 아들인 懿侯가 즉위하였다.

【「聶政傳」】“濮陽의 嚴仲子是 韓 哀侯를 섬기었는데, 韓의 재상 俠累와 사이가 나빴다.”³¹⁾

「聶政傳」에서는 俠累의 피살을 哀侯 때의 사건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六國年表」·「韓世家」에서는 聶政의 사건이 烈侯 3년에 발생한 일이고, 哀侯 6년에는 그와 무관한 별도의 군주 시해가 발생한 것으로 서술한다.

도대체 聶政의 암살사건은 언제 발생하였는가? 聶政이 살해한 인물은 한 명인가, 아니면 두 명인가? 『史記』 「聶政傳」의 嚴仲子和 「韓世家」의 韓嚴은 동일한 인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전국시기 문헌에서는 대체로 재상과 군주의 피살을 동일한 사건으로 기록하였는데, 『史記』에서는 왜 시간적 거리가 있는 두 사건으로 분리하였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짝 텃던 듯하다. 東漢 王充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글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 竹帛에 기록된 것이라면 모두 聖賢이 전한 바로서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여긴다. 그 때문에 믿어 옳다고 여기고 입으로 외위하며 읽는다. …… 세상에 전하는 글에 따르면 “聶政이 嚴翁仲을 위해 韓王을 척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다. 聶政이 활약했던 때는 대체로 韓 列侯 때이다. 列侯 3년에 聶政이 韓의 재상 俠累를 찢어 죽이고 12년에 列侯가 죽는다. 위의 이야기는 聶政이 俠累를 살해하고 17년 후에 다시 聶政이 한왕을 척살했다는 말이니, 믿을 수 없는 비공식적인 기록[短書小傳]에 나오는 내

31) 『史記』 「六國年表」韓烈侯 3년: “三月, 盜殺韓相俠累”; 「韓世家」: “列侯三年, 聶政殺韓相俠累”; 「六國年表」韓哀侯 6년: “韓嚴殺其君”; 「韓世家」“(哀侯)六年, 韓嚴弑其君哀侯, 而子懿侯立”; 「聶政傳」: “濮陽嚴仲子事韓哀侯, 與韓相俠累有卻.”

용으로서 결국 근거가 없어 믿을 수 없다.³²⁾

王充은 「六國年表」와 「韓世家」 계열의 사료에 근거하여 『戰國策』 「韓傀相韓」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聶政의 암살 행위는 烈侯 때의 일이고, 聶政 역시 俠累를 척살하고 죽었기 때문에, 韓王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王充과 같은 비판적 합리주의자는 문헌이 형성하면서 발생하는 혼란을 용납하기 어려웠던 듯하다.

하지만 『戰國策』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전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진상을 한 가지로 고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韓三」에는 東孟之會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東孟之會에서 聶政과 陽堅이 재상과 군주를 칼로 찔렀다. 그때 許異가 哀侯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죽은 체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즉위하여 鄭(韓)의 군주가 되었다. 韓氏의 무리 가운데 許異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許異가 哀侯의 즉위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哀侯가 군주로 있을 때 許異가 죽을 때까지 재상을 맡은 이유였다. 韓氏는 哀侯를 받드는 것처럼 許異를 모셨다.³³⁾

이곳에서는 東孟之會의 刺客이 聶政과 陽堅 두 사람이었으며, 哀侯가 韓傀와 함께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許異의 기지로 哀侯가 목숨을 잃지 않았고, 그러한 공훈으로 許異는 죽을 때까지 哀侯의 재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韓傀相韓」 이외에도 전국시기 여러 문헌에서 韓 哀侯의 피살을 기

32) 王充, 『論衡』 권4 「書虛」: “世信虛妄之書, 以爲載於竹帛上者, 皆賢聖所傳, 無不然之事, 故信而是之, 諷而讀之. …… 傳書言: ‘聶政爲嚴翁仲刺殺韓王.’ 此虛也. 夫聶政之時, 韓列侯也. 列侯之三年, 聶政刺韓相俠累, 十二年列侯卒. 與聶政殺俠累, 相去十七年, 而言‘聶政刺殺韓王’, 短書小傳, 竟虛不可信也.”

33) 『戰國策』 권28 「韓三·謂鄭王曰昭釐侯」: “東孟之會, 聶政、陽堅刺相兼君. 許異蹴哀侯而殤之, 立以爲鄭君. 韓氏之衆無不聽令者, 則許異爲之先也. 是故哀侯爲君, 而許異終身相焉. 而韓氏之尊許異也, 猶其尊哀侯也. 今日鄭君不可得而爲也, 雖終身相之焉, 然而吾弗爲云者, 豈不爲過謀哉!”

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이야기의 사실성이 다소 빈약하다. 이 때문에 横田惟孝의 『戰國策正解』, 于鬯의 『戰國策注』, 吳曾祺의 『戰國策補注』에서는 이곳의 ‘哀侯’는 그 아들인 ‘懿侯’를 잘못 쓴 것이라고 추정한다.³⁴⁾ 于鬯의 설명처럼 哀와 懿는 一聲之轉의 관계에 있는 글자일 뿐만 아니라, 또 군주와 재상이 살해당해 아수라장이 된 東孟之會에서 哀侯의 아들인 懿侯가 許異의 기지로 살아남아 군주에 올랐다는 서사가 더욱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司馬貞은 『史記』 「韓世家」 哀侯 6년 條에서 『竹書紀年』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竹書紀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晉 桓公은 (韓) 哀侯가 鄭에 도읍을 정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韓山堅이 그 군주인 哀侯를 해치고 韓若山을 세웠다.” 若山이 懿侯라면, 韓山堅이 바로 韓嚴이 된다. 『戰國策』에는 또한 韓仲子³⁵⁾가 나오고 그 이름이 遂인데, 이 사람이 바로 韓嚴인 듯하다.³⁶⁾

『竹書紀年』에서는 哀侯를 시해한 자로 韓山堅을 지목하고 있는데, 司馬貞은 이 사람을 『史記』 「韓世家」의 韓嚴, 『戰國策』 「韓傀相韓」의 嚴遂와 동일한 인물로 추정한다.³⁷⁾ 이렇게 보면 聶政의 사건은 韓 哀侯 때 군주와 재상을 한 자리에서 암살한 정변이었다. 그렇다면 왜 『史記』에서는 烈侯 3년의 재상 피살과 哀侯 6년의 군주 시해로 나누어 서술한 것일까? 이에 대한 司馬貞의 해

34) 范祥雍, 『戰國策箋證』(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권28 「韓三·謂鄭王曰昭釐侯」注[30], 1606~1607쪽 참조.

35) 현존본 『戰國策』에는 ‘韓仲子’가 아니라 ‘嚴仲子’로 되어 있다. 司馬貞 시기의 판본에는 ‘韓仲子’로 쓰고 있는 것인지, 혹은 司馬貞의 착오인지, 아니면 후대의 전승과정에서 생긴 訛誤인지 확실하지 않다.

36) 『史記』 「韓世家」 哀侯 6년 條의 司馬貞 索隱: “又紀年云‘晉桓公邑哀侯于鄭, 韓山堅賊其君哀侯而立韓若山.’ 若山即懿侯也, 則韓嚴爲韓山堅也. 而戰國策又有韓仲子, 名遂, 又恐是韓嚴也.”

37) 하지만 司馬貞은 嚴仲子를 烈侯 때의 인물로 파악하기도 한다. 『史記』 「聶政傳」 司馬貞의 索隱: “「表」 聶政殺俠累在列侯三年. 列侯生文侯, 文侯生哀侯, 凡更三代, 哀侯六年爲韓嚴所殺. 今言仲子事哀侯, 恐非其實.”

석은 다음과 같다.

또한 太史公은 의문스러운 사실을 들으면 의문스러운 상태 그대로 전 달하였다. 어떤 사건의 정확한 근거를 하나로 확정하기 어려우면 두 가 지를 그대로 남겨두려 했다. 이 때문에 「六國年表」와 「聶政傳」의 내용이 다른 것이다.³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聶政과 관련한 전국시기의 문헌 기록은 傳承에 따라 사건 발생의 시기, 주요인물의 신상, 사건의 전개 과정 등 매우 다양하다. 司馬遷 역시 그러한 혼란상을 완벽하게 통일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史記』에서도 다양한 기록의 흔적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司馬貞의 설명과 같이, 「六國年表」·「韓世家」와 「聶政傳」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이유는 각각 의거한 자료가 서로 달랐고, 司馬遷 역시 일관된 통일성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대의 주석가와 학자들은 여전히 미궁에 빠진 聶政 사건의 진상을 한 가지로 확정하려 최근까지 많은 논쟁을 벌였는데, 주로 사건 발생의 시기 비정을 통해 그 역사적 진상을 파악하려는 노력이었다. 聶政의 사건이 烈侯 때의 일인지, 아니면 哀侯 때의 일인지에 따라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³⁹⁾ 하지만 대부분 여전히 완벽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궁 속에서 사건의 진상을 구출하여 빠져나왔다고 주장하지만, 그 미궁의 출구가 또 다른 미궁의 입구인 경우가 많다.

38) 『史記』 「聶政傳」 司馬貞의 索隱: “且太史公聞疑傳疑, 事難的據, 欲使兩存, 故「表」、 「傳」各異.”

39) 范祥雍, 『戰國策箋證』 권27 「韓二·韓傀相韓」 注[58](1585~1589쪽)에는 王充 이래 역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훌륭한 참고가 된다.

3. 「聶政傳」의 갈등 구조

司馬貞은 司馬遷이 사료를 억지로 통합하려 하지 않고 그 원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려 했다고 평가한다[聞疑傳疑, 事難的據, 欲使兩存]. 하지만 『史記』가 단순히 사료를 어지럽게 집적해 놓은 저작은 결코 아니다. 「刺客傳」에 수록한 다른 인물들의 전기와 마찬가지로, 「聶政傳」 역시 司馬遷의 정교한 가공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聶政傳」은 기본적으로 『戰國策』 「韓傀相韓」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지만, 「韓傀相韓」의 핵심적 내용 가운데 하나인 哀侯의 피살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사실 「聶政傳」의 주된 관심사는 聶政 사건을 구성하는 단편적 사실을 고증하는 데에 있지 않다. 司馬遷은 이 사건이 烈侯 때의 일인지, 아니면 哀侯 때의 일인지는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하다. 「聶政傳」과 「韓世家」 사이의 괴리는 심각한 실수가 아니라, 그저 司馬遷이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일 뿐이다.

「聶政傳」은 사료의 세부적 사실을 정확하게 고찰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적으로 구조화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그려내고 있다. 아래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세 가지 갈등의 구조를 분석하여, 「聶政傳」이 내포한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1) 俠累와 嚴仲子: 血族과 寵臣의 대립

『戰國策』 「韓傀相韓」에서는 韓傀와 嚴遂의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韓傀가 韓의 재상이 되었을 때 嚴遂는 군주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미워하였다. 嚴遂가 韓傀의 잘못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거침없이 입바른 소리를 하였는데, 이 때문에 韓傀가 조정에서 嚴遂에게

욕을 하며 따졌다. 그러자 嚴遂는 칼을 뽑아들고 韓傀에게 달려들었고, 韓傀는 다른 사람들이 막아주어 간신히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嚴遂는 이 일 때문에 韓傀에게 살해당할까 두려워 도망쳤다. 그 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韓傀에게 앙갚음을 해 줄 사람을 찾았다.⁴⁰⁾

韓傀는 군주의 작은 아버지이자 재상이었고 嚴遂는 군주에게 총애를 받는 신하였는데, 그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조정에서 말다툼 끝에 嚴遂가 칼까지 빼 들고 韓傀에게 달려드는 일이 발생한다. 韓傀는 이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장면을 통해 嚴遂의 직설적인 말버릇과 쉽게 흥분하는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聶政傳」에서는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일화를 생략한 채, “濮陽의 嚴仲子는 韓 哀侯를 섬겼는데, 韓相 俠累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⁴¹⁾고 짧게 서술한다.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을 “有卻”이라는 단 두 글자로 축약한 것이다. 이러한 축약에는 司馬遷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聶政傳」에서는 두 사람이 갈등하는 원인을 우발적인 사건이나 개인적인 성격에서 찾지 않고, 당시의 시대적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다.

俠累가 哀侯의 작은 아버지[季父]로서 韓氏라는 宗族 공동체를 대표한다면, 嚴仲子는 濮陽 출신의 인재로서 韓이 영입한 종족 공동체 외부 세력을 상징한다. 전국시기 變法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부국강병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특히 濮陽을 도움으로 삼은 衛나라는 한 번도 패권을 잡지는 못하였지만, 周 武王의 동생인 康叔이 분봉을 받아 세운 유서 깊은 나라로서,⁴²⁾ 춘추전국 시대에 활약한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子貢과 子夏와 같은 孔子의 제자, 魏 文侯의 패업을 군사적 측면에서 실현한 吳起, 秦의 변법을 주도한 商鞅 등이 바로 衛나라 출신이다. 嚴仲子 역시 衛 출신으로, 기원전 5세기 말에서 4세기

40) 『戰國策』 「韓二·韓傀相韓」: “韓傀相韓, 嚴遂重於君, 二人相害也. 嚴遂政議直指, 舉韓傀之過, 韓傀以之叱之於朝. 嚴遂拔劍趨之, 以救解. 於是嚴遂懼誅, 亡去游, 求人可以報韓傀者.”

41) 『史記』 「聶政傳」: “濮陽嚴仲子事韓哀侯, 與韓相俠累有卻.”

42) 『史記』 「衛康叔世家」 참조.

초 새롭게 부상한 韓이 魏·趙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영입한 인사인 듯하다. 전국시기 외국 출신의 인제는 將軍이나 客卿으로 발탁되어 기존의 국가와 사회 구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로 기능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개혁의 과정에서 西周 이래 춘추시기까지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단위인 종족 공동체의 해체를 가속화하였기 때문에, 한 국가의 기득권을 쥐고 있던 血族의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린다. 더욱이 외국 출신의 客卿이나 將軍은 대부분 군주 개인이 발탁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등용한 군주가 죽거나 권력을 상실하면 기존의 종족 공동체에 의해 축출을 당해 몰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秦에서 활약한 商鞅이 대표적인 예이다.

司馬遷은 「聶政傳」에서 俠累와 嚴仲子의 갈등을 개인적 불화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이와 같은 전국시기의 사회 구조적 변화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嚴仲子は 聶政에게 자신이 암살하고자 하는 대상을 알려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 원수는 韓의 재상 俠累입니다. 俠累는 또한 韓나라 군주의 작은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 宗族은 세력이 강성할 뿐만 아니라 사는 곳에 호위병도 뺨뺨이 세워 둡니다. 제가 사람을 시켜 찢러 죽이려 해도 결국 아무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⁴³⁾

이는 俠累에 관한 현실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군주에게 발탁되어 한 국가의 변법을 추진하는 客卿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토로하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다. 客卿은 칼 한 자루만 쥐고 종족 공동체의 뻘뻘한 방어를 뚫고 들어가 그 핵심 세력을 제거하는 刺客이다.⁴⁴⁾

43) 『史記』 「聶政傳」: “臣之仇韓相俠累, 俠累又韓君之季父也, 宗族盛多, 居處兵衛甚設, 臣欲使人刺之, (衆)終莫能就.”

44) 客卿과 刺客의 사회문화적 의미에 관해서는 김광일, 「刺客의 탄생, 능력의 발견: 『史記』 「專諸傳」 깊이 읽기」(『中國語文論叢』 110집, 2022년) 참조.

2) 嚴仲子和聶政: 義와 知를 둘러싼 암묵적 계약

聶政 사건을 다루는 여러 문헌에서 유일하게 동일한 이름을 갖는 인물은 바로 聶政이다. 아마도 聶政이 이 이야기에서 서사 구조를 형성하고 응결핵의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戰國策』 「韓傀相韓」에서는 韓傀와 嚴遂의 갈등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史記』 「聶政傳」에서는 傳記의 형식에 따라 聶政을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서사의 초점을 聶政에게 맞춘다.

聶政은 軹 深井里 사람이다. 살인을 저지른 후, 복수를 하려는 원수를 피해 어머니·누나와 함께 齊로 도망쳐 백정 일로 생계를 삼았다.⁴⁵⁾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은 「聶政傳」에서는 「韓傀相韓」과 같은 다른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 聶政의 살인 경력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상 칼을 사용하는 백정이라는 직업과 더불어 살인은 聶政이 刺客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俠累를 암살할 사람을 찾아 여러 나라를 떠돌았던 嚴仲子は 齊에 도착해 “용감한 士[勇敢士]”가 있다는 정보를 얻고 聶政을 찾아간다. 「聶政傳」에서는 嚴遂와 聶政이 처음 교류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嚴仲子が 문 앞까지 찾아가 만나기를 청하였다. 嚴仲子は 聶政을 몇 차례 만난 후에 술상을 차려와 聶政의 어머니 앞에 손수 술잔을 올렸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嚴仲子は 황금 百溢을 받들어 앞에 두면서 聶政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였다. 聶政은 너무 큰 재물이라 놀랍고 괴이하여 끝끝내 사양하였다. 嚴仲子が 그래도 끈질기게 건네주려 하자, 聶政이 다시 사양하면서 말하였다.

“저는 다행히도 어머니가 살아 계십니다. 집이 가난하고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흘러와 개백정 일을 하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달고 바삭한 음식을 얻어 어머니를 모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 공양드릴 음식을 마

45) 『史記』 「聶政傳」: “聶政者, 軹深井里人也. 殺人避仇, 與母、姊如齊, 以屠爲事.”

련하면 충분합니다. 감히 仲子께서 내려주시는 재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嚴仲子가 주변 사람들을 물리고 聶政에게 말했다.

“제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두루두루 돌아다녔는데, 齊에 이르러서야 어르신[足下]의 의로움이 매우 높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百金을 올리는 것이니, 앞으로 어머님을 위해 거친 음식이라도 장만할 때 쓰시길 바랍니다. 어르신과 사귄 수 있는 즐거움을 얻었으니 충분합니다. 제가 어찌 따로 바라는 마음을 품겠습니까?”

聶政이 말하였다.

“제가 이렇게 뜻을 내려놓고 몸을 육보이면서 시장통에 살며 백정 일을 하는 이유는 단지 다행히도 어머니를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제 몸은 감히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嚴仲子가 끈질기게 받아달라 했지만, 聶政은 결국 끝끝내 받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嚴仲子도 결국 빈객과 주군의 예[賓主之禮]를 마친 후에 떠났다.⁴⁶⁾

흡사 암호를 주고받는 듯한 두 사람의 행동과 말에는 당시 문화적 약호가 숨어있다. 한 나라의 卿相을 지내어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신분이었던 嚴仲子가 천민 계층인 백정을 직접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韓傀相韓」에서는 이때 聶政이 嚴遂에게 “당신은 나를 어디에 쓰려는 거요?(子欲安用我乎)”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聶政傳」에서는 생략하여 은근히 처리한다. 거기에다 嚴仲子는 聶政에게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황금을 주려고 하였다.⁴⁷⁾

嚴仲子가 “어르신[足下]의 의로움이 매우 높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는 모

46) 『史記』 「聶政傳」: “嚴仲子至門請, 數反, 然後具酒自暢聶政母前. 酒酣, 嚴仲子奉黃金百溢, 前爲聶政母壽. 聶政驚怪其厚, 固謝嚴仲子. 嚴仲子固進, 而聶政謝曰: ‘臣幸有老母, 家貧, 客游以爲狗屠, 可以旦夕得甘毳以養親. 親供養備, 不敢當仲子之賜.’ 嚴仲子辟人, 因爲聶政言曰: ‘臣有仇, 而行游諸侯衆矣; 然至齊, 竊聞足下義甚高, 故進百金者, 將用爲大人羸羸之費, 得以交足下之驩, 豈敢以有求望邪!’ 聶政曰: ‘臣所以降志辱身居市井屠者, 徒幸以養老母; 老母在, 政身未敢以許人也.’ 嚴仲子固讓, 聶政竟不肯受也. 然嚴仲子卒備賓主之禮而去.”

47) 1溢은 현대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1kg이므로, 황금 100溢은 현재 가치로 70~80억원에 이른다.

두 聶政의 의로움[義]을 사기 위한 대가였다. 여기서 의로움은 단지 “옳다”는 의미가 아니다. 당시의 義는 주군과 가신의 계약관계에서 가신이 자신의 목숨을 주군에게 바친다는 뜻이었다. 또한, 전국시기 士는 策名委質이라는 형식을 통해 주군과 계약관계를 맺었는데, 『聶政傳』에서는 이를 ‘빈객과 주군의 예[賓主之禮]’라 표현하였다.⁴⁸⁾

聶政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혈연 공동체의 윤리를 들어 義를 넘겨주지 않았지만, 嚴仲子是 끝내 賓主之禮를 치러 聶政에게 암묵적인 계약을 강요한다. 물론 聶政이 100溢의 황금을 받지 않아 嚴仲子是 물질적 대가를 치르지는 않았다. 그 대신 嚴仲子是 聶政의 의로움을 알아보는[知] 것으로 聶政의 목숨을 산다. 어머니가 죽자 聶政이 결국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겠다”는 말로 嚴仲子가 제안한 계약을 받아들인다. 나중에 聶政의 누나인 聶榮이 “아아, 嚴仲子가 내 동생을 알아보았구나(嗟乎! 嚴仲子知吾弟!)”라고 한탄하는 것도 知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나타낸다.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義와 知를 둘러싼 암묵적 계약이 『聶政傳』의 두 번째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다.

3) 聶政과 聶榮: 중국 최초 烈女の 탄생

결국 嚴仲子와 주군과 가신이라는 암묵적 계약을 맺은 聶政은 俠累 암살을 위해 칼 한 자루만 지팡이 삼아 홀로 濮陽에서 韓으로 길을 떠난다. 그 전에 嚴仲子是 聶政에게 부대와 병장기를 딸려 보내려 하지만 聶政이 거부하였다. 『戰國策』의 다른 기록에서는 陽堅(陽堅)이라는 副使가 동행한 것으로 기술하지만,⁴⁹⁾ 『聶政傳』에서는 철저히 홀로 암살을 수행한 것으로 묘사한다. 이것은 聶政이 자신의 신원을 인멸하기 위한 것이었다.

48) 전국시기의 義의 의미와 策名委質에 관해서는, 김광일, 「이리의 탄생: 『史記』 「刺客·豫讓」 다시 읽기」, 『中國學報』 제96집(2021년 5월) 참조.

49) 『戰國策』 권1 「東周·嚴氏爲賊」; 권28 「韓三·謂鄭王曰」 참조.

聶政이 말하였다.

“韓과 衛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지금 남의 나라의 재상을 죽이려 하는데, 그 재상은 또 그 나라 군주의 친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많이 데려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살아서 잡히는 경우도 생길 테고, 그렇게 생포되면 말이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말이 새어나가면, 韓은 온 나라를 들어서 仲子에게 복수하려 할 것입니다. 어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聶政은 수레와 부대원을 사양하고는 곧장 인사를 올리고 홀로 떠났다. 갈 한 자루를 지팡이 삼아 韓에 이르러 살펴보니, 韓의 재상 俠累가 집안에 앉아 있었고 무기를 든 호위병들이 매우 많았다. 聶政은 곧장 안으로 들어가 뒷계단에서 俠累를 척살하자, 주위가 크게 소란스러웠다. 聶政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찢러 죽인 자가 수십 명이었다. 이에 스스로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눈알을 파내었으며, 스스로 자신의 배를 가르니 내장이 몸 밖으로 쏟아졌다. 이에 결국 죽었다.⁵⁰⁾

「韓傀相韓」에서는 東孟之會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진행하던 때에 聶政이 韓傀를 척살하였다고 설명한다. 그 척살 과정에서 韓傀가 도망치다 哀侯를 껴안았고, 결국 哀侯가 함께 살해되었다는 것까지 비교적 상세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聶政傳」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배제한 채 단지 “곧장 안으로 들어가 뒷계단에서 俠累를 척살”하였다고 간단하게 설명한다. 반면, 스스로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눈알을 파내고 자신의 배를 갈랐다는 聶政의 자살 과정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司馬遷은 聶政이 어떻게 자신의 신원을 인멸했는지에 더욱 관심이 있었던 듯하다.

聶政이 이렇게 자신의 신원을 지운 이유는 우선 嚴仲子에 대한 의로움을 다하기 위함이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지면 嚴仲子が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누나인 聶榮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聶政은 의로움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철저히 지웠다. 聶政은 義士라면 어떻게 죽

50) 『史記』「聶政傳」: “聶政曰: ‘韓之與衛, 相去中間不甚遠, 今殺人之相, 相又國君之親, 此其勢不可以多人, 多人不能無生得失, 生得失則語泄, 語泄是韓舉國而與仲子爲讎, 豈不殆哉!’ 遂謝車騎人徒, 聶政乃辭獨行. 杖劍至韓, 韓相俠累方坐府上, 持兵戟而衛侍者甚衆. 聶政直入, 上階刺殺俠累, 左右大亂. 聶政大呼, 所擊殺者數十人, 因自皮面決眼, 自屠出腸, 遂以死.”

어야 하는지 자신의 몸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누나인 聶榮은 聶政의 생각과 달랐다. 聶榮은 韓 재상의 피살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범인이 聶政임을 직감한다. 齊에서 韓까지 한달음에 내달려 시장통에 暴尸한 범인을 확인하고, 軹 深井里的 聶政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린다. 한나라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聶榮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聶政이 시장통 장사꾼들 사이에서 온갖 모욕을 뒤집어 쓰면서도 자신의 뜻을 포기한 이유는 다행히도 어머니가 살아계셨고 제가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미 천수를 누리신 후 돌아가셨고, 저도 이미 남편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嚴仲子가 이에 내 동생이 곤궁한 처지에 놓인 것을 잘 살피고는 동생과 교류하였는데, 그 은택이 매우 두터웠습니다.

그러니 동생이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士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지금 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동생은 스스로 무거운 형벌을 내림으로써 추적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죽는 게 두려워서 끝내 이처럼 훌륭한 동생의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겠습니까!⁵¹⁾

「韓傀相韓」에서 聶榮은 聶政의 용감함을 강조하는 반면, 「聶政傳」에서는 “士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士爲知己者死)”라는 전국 시기 士의 윤리를 내세운다. 또한 聶榮은 명성[名]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聶政이 목숨의 댓가로 의로움을 실현하였다면, 聶榮은 의로운 동생의 명성과 자신의 목숨을 바꾼 것이다.

「聶政傳」은 「韓傀相韓」에 비해 聶榮을 서술하는 부분의 분량을 꽤 늘렸을 뿐만 아니라, 聶榮의 행적과 말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문장을 고치고 있다. 이는 聶政이 추구하는 의로움[義]과 聶榮이 중시하는 명성[名]이 「聶政傳」의 갈등 구조를 이루는 세 번째 축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晉·楚·齊

51) 『史記』「聶政傳」：“然政所以蒙汚辱自棄於市販之間者，爲老母幸無恙，妾未嫁也。親既以天年下世，妾已嫁夫，嚴仲子乃察舉吾弟困汚之中而交之，澤厚矣，可奈何！士固爲知己者死，今乃以妾尚在之故，重自刑以絕從，妾其奈何畏歿身之誅，終滅賢弟之名！”

·衛 등 당시 중국 전역에 퍼진 聶政에 대한 평가를 비교적 완정하게 수록하고 있다.

비단 聶政만이 유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 누나 역시 烈女였구나! 자신의 누나가 굴욕을 곳곳이 참아내는 성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聶政이 잘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누나는 해골이 드러나는 고난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험난한 천릿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남매 모두 韓의 시장통에서 주륙을 당할 것을 예상했다면, 聶政도 감히 嚴仲子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嚴仲子 역시 사람의 능력을 잘 알아보아 토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이를 만하구나!⁵²⁾

聶榮은 명성을 위해서라면 신체적 고난과 죽음 따위는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여자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聶榮을 “烈女”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烈女라는 단어의 최초 용례이다. 烈女の 현대적 의미는 “죽음을 무릅쓰고 절개를 지킨 여자”라는 뜻으로서,⁵³⁾ 주로 “한 남자에게 온 마음을 다 바치는 여자”를 가리킬 만큼 그 범위가 축소된 듯하다. 하지만, 聶榮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시작은 “의로운 명성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지 않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렇게 義士의 죽음과 더불어 烈女가 탄생하였다.

4. 결론

이 논문은 『史記』 권86 「刺客·聶政傳」의 심층적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聶政에 관한 전국시기 문헌의 기록은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주는 데에 비해, 「聶政傳」은 완결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역대의 학자들은

52) 『史記』 「聶政傳」: “非獨政能也, 乃其姊亦烈女也. 鄉使政誠知其姊無濡忍之志, 不重暴骸之難, 必絕險千里以列其名, 姊弟俱僂於韓市者, 亦未必敢以身許嚴仲子也. 嚴仲子亦可謂知人能得士矣!”

53) 국어사전편찬실, 『한국어대사전』(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참조.

韓의 재상을 살해한 聶政 사건의 유일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세부적 사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 「聶政傳」의 결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聶政傳」이라는 텍스트의 통일성과 聶政 사건이라는 컨텍스트의 혼란함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이다.

『戰國策』 「韓傀相韓」을 비롯하여 聶政 사건을 다루는 전국시기의 문헌과 달리 『史記』 「聶政傳」은 전국시기 士의 새로운 윤리의식을 다룬 텍스트이다. 이러한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우선 聶政 사건을 다루는 전국시기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 하나로 수렴할 수 없는 사건의 진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聶政傳」의 심층구조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서사적 갈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司馬遷이 그려내고자 하였던 전국시기의 시대상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戰國策』 「韓傀相韓」과 같은 전국시기의 문헌이 이 사태의 경과와 정치적 과장을 서술하는 데에 치중한다면, 『史記』 「聶政傳」에서는 윤리와 가치의 충돌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이 사건의 범인인 聶政에 더하여 중국 최초의 烈女인 聶榮의 이야기를 확장함으로써 전국시기 초기 시대적 윤리의식의 변화와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포착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參考文獻

- 국어사전편찬실, 『한국어대사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 陳夢家, 『六國紀年』, 北京: 中華書局, 2005.
- 方詩銘, 『中國歷史紀年表(修訂本)』,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7.
- 方詩銘·王修齡 校注, 『古本竹書紀年輯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 范祥雍, 『古本竹書紀年輯校訂補』,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 朱右曾, 『汲冢紀年存眞』, 清歸硯齋刻本(中國基本古籍庫).
- 楊寬, 『戰國史料編年輯證』,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5.
- 平勢隆郎, 『新編 史記東周年表: 中國古代紀年の研究序章』,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5.
- 范祥雍, 『戰國策箋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 黃丕烈, 『戰國策札記』, 重刻剡川姚氏本.
- 王先謙, 『韓非子集解』, 北京: 中華書局, 1998.
- 陳奇猷 校釋, 『呂氏春秋新校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2014.
- 顧炎武, 黃汝成 集釋, 『日知錄集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 姚振宗 輯錄, 『七略別錄佚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 王充, 『論衡』, 北京: 中華書局, 1995.
- 吉本道雅, 『中國先秦史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5.
- 藤田勝久, 曹峰·廣瀨薰雄 譯, 『『史記』戰國史料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 리평 지음, 이청규 옮김, 『중국고대사』,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 가이즈카 시게키·이토 미치하루 지음, 배진영·임대희 옮김, 『중국의 역사: 선진시대』, 서울: 도서출판 혜안, 2011.
- 김광일, 「의리의 탄생: 『史記』 「刺客·豫讓」 다시 읽기」, 『中國學報』 제96집, 2021.
- 김광일, 「刺客의 탄생, 능력의 발견: 『史記』 「專諸傳」 깊이 읽기」, 『中國語文論叢

』 110집, 2022.

吉本道雅, 「『左傳』と鄭」, 日本中國史學會, 『中國史學』, 제28집, 京都: 朋友書店, 2018.

Abstract

The Death of Loyal Man, the Birth of Valorous Women

Kim, Kwang Il

Nie Zheng(聶政) is the fourth assassin in ‘Memoir of the Assassin-Retainers’(「刺客傳」), The Grand Scribe’s Record(『史記』), who assassinated Xia Lei(俠累), the Prime Minister of Han(韓), by the instigation of Yan Zhongzi(嚴仲子). At that time, Han was aggressively expanding its national strength, so the murder of the prime minister of such an emerging power in broad daylight was a major political situation that caused great interest and repercussions internationally.

The most complete record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literature on this murder case is ‘Han Kui(韓傀) became the Prime Minister of Han’(「韓傀相韓」), *Annals of the Warring States*(『戰國策』),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material of ‘Memoir of the Assassin-Retainers’. However, the focus of ‘Memoir of the Assassin-Retainers’ is subt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historical materials. It captured the changes in ethical consciousness and its socio-cultural meaning in the early Warring States period by expanding the story of the sister of the criminal of this case who was China's first valorous women(烈女), while ‘Han Kui(韓傀) became the Prime Minister of Han’ focuses on describing the course and political repercussions of this cas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tents and structures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literature such as *Annals of the Warring States* and *The Grand Scribe’s Record* in detail. In the process, it tracks how loyalty(義) and fame(名) became the zeitgeist of the times.

Key words : Nie Zheng(聶政), Nie Rong(聶榮), Xia Lei(俠累), Yan Zhongzi(嚴仲子), loyal man(義士), valorous women(烈女), loyalty(義), fame(名)

투 고 일 : 2022. 7. 10. / 심 사 일 : 2022. 7. 15. ~ 2022. 8. 15. / 게재확정일 : 2022. 8. 20.

